



HEADLINE NEWS

아시아 대도시 협력 「네트워크」
발족 공동선언 (칼라룸푸르)

지난 8월 28일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는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공동제창 도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서울, 東京, 델리(인도), 칼라룸푸르의 4개 도시 시장들은 ‘아시아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환경, 도시계획, 문화예술, 관광진흥, IT와 같은 기술개발 분야 등에서 상호연계,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 지역 수도 및 대도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참여도시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방콕, 베이징, 홍콩,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타이베이, 양곤(미얀마), 싱가포르의 참여를 적극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01년 회의는 東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高建 서울시장은 평양의 참여를 제안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經濟新聞, 8. 29)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방안’ 논란 (뉴욕)
- ② 도시열섬효과 억제 위해 시청옥상에 정원 조성 (시카고)
- ③ 역사적 건물 및 유적 ‘민관합동’으로 보전 (함부르크)
- ④ 동네 벽·건물을 ‘야외 화랑’으로 조성 (토론토)

도시환경

- ⑤ 냉방용 가전제품 폐기시 사전에 CFQ스 제거신청해야 (뉴욕)
- ⑥ 자연 및 경관보호구역 확대지정 추진 (베를린)
- ⑦ 중고용품·재활용품만 파는 ‘환경백화점’ 성업중 (독일 : Mannheim)
- ⑧ 23개 특별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독자 수립·운영 (동경)
- ⑨ ‘소각재로 시멘트를 만든다’ (일본 : 千葉市)

도시교통

- ⑩ 2008년 올림픽 유치전략으로 녹지벨트형 環狀로 건설중 (북경)
- ⑪ 주차위반벌금 상습미납자 명단 공개 (뉴욕)

사회복지

- ⑫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박람회 개최 (시카고)

행.재정

- ⑬ 대규모 퍼레이드행사 안전규칙 제정 (뉴욕)
- ⑭ 수도요금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발부 (토론토)
- ⑮ 市 부서장이 지방세체납자 가정 방문해 세금 징수 (일본 : 하치오지市)

①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방안’ 논란 (뉴욕)

지난 52년간 뉴욕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어 온 Staten Island의 3천 에이커 규모의 Fresh Kills 매립지 이용이 내년 1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이 매립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당국은 점점 악화되는 이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 건립, 그리고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야생생태공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 New York Times, 8. 9)

② 도시열섬효과 억제 위해 시청옥상에 정원 조성 (시카고)

시카고시 환경보전국은 현재 과도한 에너지 소비부하를 경감하고 대기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 옥상에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도시 열섬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옥상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청옥상 정원은 50종 2만여 식물이 자라는 1,886㎡ 규모의 정원으로, 조성 초기에는 옥상 상공의 바람과 물 공급이 가장 큰 난제였지만, 이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4천 달러 상당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오존오염 및 스모그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정원은 시민들의 접근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심미적인 안락감을 제공하는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cityofchicago.org/Environment/html/RooftopGarden.html)

3] 역사적 건물 및 유적 ‘민관합동’ 으로 보전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시는 현재 역사적 건물 및 유적 2천여 개를 보존·보호하고 있으며, 이 중 1,070개의 건물과 유적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시민들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 지난 10년간 약 5천5백만 마르크(DM)라는 거금을 모금하여 기부했다. 함부르크에는 이외에도 보호 가치가 있는 유물 약 1만2천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ww.hamburg.de/English/StadtPol/99xNrleng/culture3.htm)

4] 동네 벽·건물을 ‘야외 화랑’ 으로 조성 (토론토)

토론토 도시개발국은 훼손된 벽과 건물을 총천연색의 ‘동네 화랑’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최근 약 30만 달러를 16개의 지역단체와 사회봉사 단체에 지원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이 자금으로 젊은이들을 고용, 벽과 건물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사업에 공감한 민간후원자들이 이들 참여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보다 안전한 공원과 보도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이웃간의 거리도 좁힐 수 있었으며,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고용 및 훈련의 기회도 제공해줄 수 있었다.

(w4.metrotor.on.ca/icsite/newsrel.nsf/7017df2f20edbe2885256619004e428e/44d2d7c299fc78a38525693100521dc2?OpenDocument)

5 냉방용 가전제품 폐기시 사전에 CFC가스 제거신청해야 (뉴욕)

뉴욕시는 최근 주민들이 CFC(ChloroFluoroCarbon) 가스(일명 ‘프레온 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즉 냉장고, 냉동기, 냉풍기, 가습기, 에어컨 등의 쿨링 기구를 폐기처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뉴욕시 위생국에 CFC 가스 제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냉방용 가전제품 폐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민들이 폐기할 가전제품을 시와 약속한 폐기일 전날 밤에 문밖에 두면 그 다음날 아침 시 위생국 직원이 가전제품에서 CFC 가스를 제거한 후 증빙스티커를 가전제품에 붙인다. 청소미화원은 정해진 수거일에 증빙스티커가 부착된 가전제품만 수거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이 냉장고와 냉동기를 폐기할 때에는 안전문제를 고려, 관련 법규에 따라 문짝을 분리해서 문밖에 내놓아야 한다. 뉴욕시는 최근 연방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함유 가전제품을 적절하게 폐기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기청정법에 따라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www.ci.nyc.ny.us/html./dos/html/recycfcd.html)

6 자연 및 경관보호구역 확대지정 추진 (베를린)

베를린 도시개발위원회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베를린 전체면적의 3%를 자연보호구역, 2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하면서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현재 베를린 전체면적의 13.3%가 경관보호구역, 2%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이 추진중에 있다. 최근 베를린에서는 군사적 이용 또는 경계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 일부도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이 안이 채택되면 보호가치가 있는 약 1천개의 개별 비오톱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Landespressedienst von Berlin, 8. 8)

7] 중고용품·재활용품만 파는 ‘환경백화점’ 성업중 (독일:Mannheim)

독일의 중부도시 만하임(Mannheim)에서는 독일 최초로 지난 '97년 개점한 '환경백화점'이 성업중이다. 이 백화점은 중고용품점, 벼룩시장 등의 형태로 산재해 있던 환경관련 판매점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판매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장애인 및 장기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고용구조 정착 및 직업교육에 힘쓴 두 비영리단체의 공동출자료를 문을 열었다. 정식직원 45명 중 장애인은 39명이며, 건물 구조는 인체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재료로 꾸며졌고,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백화점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중고용품과 재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일반가정으로부터 직접 사들이거나 수거한 것이다. 현재 이 백화점은 기존의 판매망을 통해서는 상품화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소비재와 기술을 널리 전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ww.hani.co.kr/hankr21/K_98110189/98110189_047.html) (한겨레21, 1998. 1. 1)

8] 23개 특별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독자 수립·운영 (동경)

東京都 23개 특별구는 지난 4월 都로부터 이관된 폐기물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들 특별구들이 독자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달라진 것은 계획 내용이 보다 상세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板橋區는 올해 3월 2011년까지의 처리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자원화대상을 '음식물', '시장성 높은 재활용품', '시장성 낮은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고 각 품목에 대한 연차별 회수목표를 설정해놓았다. 재활용 추진 방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처분하는 '집단회수', 분리 배출하면 구가 회수하는 '분별수거', 일정한 장소에 수집함을 놓고 수거하는 '거점수거' 등으로 다양하다. 단,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자치구가 처리해야할 폐기물량을 줄이고 있다.

(板橋區, 板橋區一般廢棄物處理基本計劃, 2000. 3)

9 '소각재로 시멘트를 만든다' (일본 : 千葉市)

일본 千葉市와 인근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소각하는 일본에서는 그 동안 소각재를 주로 매립하거나 일부를 간척사업용 성토재로 활용해왔다. 그런데 '92년부터 소각재를 시멘트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주)태평양시멘트' 등은 '97년 소각재의 시멘트 원료화에 성공했다. 이에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중 千葉市와 인근 31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재의 시멘트화가 일본의 폐기물관리 정책목표 중 하나인 매립량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이 업체와 소각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현재 (주)태평양시멘트는 千葉市에 인접한 市原市에 하루 200톤의 소각재를 시멘트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중에 있다.

(소각시설용량산정 관련 시정개발연구원 해외출장보고서, 유기영)

2008년 올림픽 유치전략으로 녹지벨트형 環狀도로 건설중 (북경)

북경시는 2008년 올림픽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녹지벨트형 環狀도로를 건설, 2001년 4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시찰단 방문시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포인트로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북경시에는 도심의 자금성을 둘러싸고 ‘二環路’, ‘三環路’라는 편도 3, 4차선의 環狀도로가 있지만, 교통난 해소,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쾌적한 환경보전 그리고 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환로’라 불리는 다목적의 녹지벨트형 環狀도로 건설에 착수했다.

북경 교외를 일주하게 될 ‘四環路’는 길이 약 60km로서, 양쪽에 폭 100m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자오양 공원, 하천 등 31개 주요 명소와 연결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2001년 6월 개통 예정이다.

(人民日報, 8. 11)

주차위반벌금 상습미납자 명단 공개 (뉴욕)

뉴욕시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은 최근 주차위반자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총 74만 달러를 미납하고 있는 21명의 상습미납자 명단을 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데에는 시가 작년부터 시행한 주요세금체납자 신상공개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뉴욕시는 주요세금 미·체납자 이름을 공개하고 나서 410만 달러의 미·체납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효과를 보았다.

(The New York Times, 8. 15)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박람회 개최 (시카고)

시카고시 장애인복지과 주최로 지난 7월 'AccessChicago 2000'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4회를 맞은 이 행사는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술,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이다. 금년에는 약 150여 업체 및 관련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시카고시 장애인 4천여명을 포함, 미 전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행사기간 동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시에서 주관하는 '접근권 제고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도 접수받았으며, 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 장애인의 연극 및 체육행사 등도 함께 개최되었다.

(www.ci.chi.il.us/Disabilities/Releases/AttendAccessChicago.2000.7.13.html)

대규모 퍼레이드행사 안전규칙 제정 (뉴욕)

뉴욕시는 최근 대규모 퍼레이드행사 안전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작년 West Indian American Carnival 퍼레이드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장 직속의 대책반을 구성, 안전대책을 강구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규칙에는 퍼레이드 행렬에 술 판매 및 공급 금지, 모든 퍼레이드 차량에 경찰관 탑승, 퍼레이드 지휘자 사전교육 실시, 퍼레이드 차량 운전대에 가드 설치, 퍼레이드 참여자 및 관람객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애완동물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The New York Times, 8. 8)

④ 수도요금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발부 (토론토)

토론토시와 세계최초의 전자 우체국인 EPOST는 지난 7월부터 캐나다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 공과금고지서 발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론토시는 현재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된 주민에 한해 수도요금 고지서를 EPOST를 통해 전자메일 방식으로 발송하고 있다. 토론토 시장도 서비스 개시일에 인터넷을 통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토론토시의 전자행정서비스 전달전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w4.metrotor.on.ca/icsite/newsrel.nsf/7017df2f20edbe2885256619004e428e/cf276585dd29befc8525692f0071375f?OpenDocument)

④ 市 부서장이 지방세체납자 가정 방문해 세금 징수 (일본 : 하치오지市)

東京都 하치오지市는 최근 금년도 세수가 작년에 비해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말에 약 120명에 달하는 관리직원을 지방세 체납자 집으로 보내 납세를 독려하거나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부서의 부장 및 과장급이 2인 1조가 되어 '99년 이전까지의 체납액이 30만엔 이하로서, 지금까지 납세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2,700 가구를 약 1주일 동안 방문하게 된다. 만일 이들 체납 가구들이 모두 납세하게 되면 약 8억엔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관리직원의 방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제기하지만 납세과에서는 관리직원이 납세자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8. 8)